

“내 골 봤지” 손흥민 생애 첫 UCL 8강 결승골



여자축구 대표팀 5월 7일 소집
2019FIFA 여자월드컵 본선 준비

아이슬란드와 국내 평가전 2경기를 1무 1패로 마친 여자축구 대표팀이 다음 달 7일 다시 소집돼 2019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 본선을 준비한다.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여자대표팀은 아이슬란드와 두 차례 A매치(국가대표팀간 경기)에서 6일 2-3으로 패한 뒤 9일 1-1로 비겨 월드컵 본선을 대비한 모의고사를 1무 1패로 마쳤다. 여자대표팀은 아이슬란드와 2차전을 마친 9일 밤 숙소인 강원도 춘천 배어호텔에서 해산했다.

대표팀 멤버 중 국내 여자실업축구 선수들은 15일 개막하는 WK리그 출격을 준비한다. 이날 오후 영국으로 나란히 출국하는 지소연(첼시 레이다스), 조소현(웨스트햄)과 일본으로 돌아가는 이민아(고베 아이나)도 소속팀으로 복귀한다. /연합뉴스



KLPGA 조아연 2연승 도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신설 대회인 셉티리온 퀸즈 마스터즈(총상금 8억원)가 12일 울산 보라 컨트리클럽(파72·6,674야드)에서 개막한다.

7일 끝난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에서 우승한 신인 조아연(19)이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팬들의 최대 관심사다.

조아연은 “지난 대회에서 원하는 대로 샷이 잘 돼서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며 “이번 대회도 물론 욕심이 나긴 하지만 일단 첫 통과를 목표로 하고 좋은 성적이 나온 뒤 10진입을 바라보겠다”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조아연은 올해 대상 포인트와 신인상 포인트, 평균 타수 부문 1위, 상급 부문에서는 1억 4,275만원으로 3위를 달리고 있어 이번 대회 결과에 따라 상급 선두까지 노려볼 수 있다.

김연아, 데이비드 윌슨과 아이스쇼 6월 6~8일 ‘울댓스케이트 2019’

‘피겨퀸’ 김연아(29)가 유명 피겨 안무가 데이비드 윌슨과 다시 손을 잡았다.

울댓스포츠는 10일 김연아가 출연하는 아이스쇼, ‘울댓스케이트 2019’의 연출을 데이비드 윌슨이 맡았다고 밝혔다.

울댓스포츠는 “윌슨은 캐나다 출신 안무가 샌드라 베직과 공동 안무, 연출을 맡게 됐다”라며 “윌슨은 2007년부터 김연아의 프로그램을 맡아온 유명 안무가”라고 전했다.

이번 아이스쇼는 6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케이스포츠에서 ‘Move me’라는 주제로 열린다. /연합뉴스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10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UEFA 챔피언스리그 맨체스터시티와의 8강 1차전에서 후반 33분 결승골을 터트린 뒤 중계카메라를 바라보며 골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맨시티 상대 후반 33분 득점 시즌 18호 토트넘 새 경기장 2경기 연속골 1-0 승

손흥민(27·토트넘)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하며 한 시즌 개인 최다 골 기록 경신을 향해 전진했다.

손흥민은 10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체스터 시티와의 2018-2019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홈경기에서 후반 33분 0-0 균형을 깨뜨리는 결승골을 폭발했다.

이번 시즌을 통틀어 손흥민의 18호 골이다.

챔피언스리그에서는 2월 14일 도르트문트(독일)와의 16강 1차전 이후 이번 시즌 두 번째 득점이다.

이로써 2016-2017시즌 토트넘에서 총 21골을 기록했던 손흥민은 2년만의 20골 돌파는 물론 한 시즌 개인 최다 골 경신도 가시권에 뒀다.

여기에 손흥민은 유럽에서 프로 생활을 한 이후 처음으로 출전한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 골을 뽑아내는 기쁨을 맛봤다.

또한, 지난 4일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에서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 개장 ‘1호 골’을 폭발한 데 이어 새 홈 경기장에서 두 경기 연속 골로 경기를 누렸다.

손흥민의 득점에 힘입어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2위를 달리는 강호 맨시티를 상대로 중요한 1-0 승리를 따내며 준결승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밟았다.

두 팀의 2차전은 18일 새벽 맨체스터에서 열린다.

이날 토트넘은 최전방 원톱에 해리 케인, 2선에 델리 알리, 크리스티안 에릭센, 손흥민을 세웠고, 맨시티는 라힘 스티링, 세르히오 아귀에로, 리야드 마흐레즈를 공격 선봉에 내세워 맞섰다.

짧은 초반 탐색전이 지나고 전반 10분 스티링이 왼쪽 측면을 돌파한 뒤 페널티 지역 중앙으로 이동해 때린 오른쪽 슈트로 공세를 시작했다.

이 상황에 대니 로즈가 미끄러지며 볼을 향해 왼팔을 들어 올린 것으로 비디오 판독(VAR) 결과 확인되면서 페널티킥이 선언돼 토트넘은 이른 시

간 뜻밖의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키커 아귀에로의 오른발 슈트 토트넘 골키퍼 위고 로리스가 몸을 날려 막아내 가슴을 쓸어내렸다.

원정팀인 맨시티가 다소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이어간 가운데 토트넘도 많지 않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전반 24분 알리가 왼쪽 측면을 돌파해 살린 공을 에릭센이 파비안 델프와 중계기 운영을 이어간 가운데 토트넘도 많지 않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전반 42분 페널티 지역 안으로 돌파하려다 스티링에게 붙잡혀 넘어져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지만, 키커 로즈의 왼발 슈트 에데르송 정면으로 향해 결국 전반은 0-0 균형을 이룬 채 마쳤다.

후반 시작하며 손흥민의 발끝은 점차 달아올랐다.

후반 3분 페널티 아크 오른쪽 강한 왼발 슈트 골대 왼쪽으로 살짝 빗나갔고, 2분 뒤엔 페널티 지역 오른쪽 오른발 슈트 에데르송에게 잡혔다.

후반 10분 케인이 파비안 델프와 충돌해 발목을 다치며 뒤통수 없는 약재가 덮쳐 손흥민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후반 32분엔 손흥민마저 오른쪽 무릎 통증을 호소해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의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으나 푹푹 털고 일어난 직후 손흥민의 왼발에서 짜릿한 결승포가 터졌다.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에릭센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거의 골라인을 넘어가기 직전의 볼을 쫓아가 따낸 뒤 끌고 들어와 날카로운 왼발 슈트로 골문을 열었다. 오프사이드 가능성으로 VAR까지 진행됐으나 골은 결국 인정됐다.

후반 시작하며 손흥민의 발끝은 점차 달아올랐다. /연합뉴스



고흥군청 불링팀이 지난 9일 경북 상주 월드컵불링장에서 막을 내린 제21회 한국실업불링연맹회장기 전국실업불링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고흥군청 전국 실업불링대회 ‘종합우승’

금 2·동 2개...2015년 팀 창단 이후 최고 성적 쾌거
강유라·남은설 2관왕...정혜경 여고부 개인전 1위

고흥군청 불링팀이 제21회 한국실업불링연맹회장기 전국실업불링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고흥군청은 지난 9일 경북 상주 월드컵불링장에서 막을 내린 이번 대회에서 2인조전과 5인조전에서 금메달 2개, 개인전과 3인조전에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대전시청(금 1·은 2·동 2)과 서울시청(금 1·동 1)을 따돌리고 종합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전국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기는 지난 2015년 12월 17일 팀 창단 이후 처음이다. 이전 최고성적은 지난 2017년 제

회회장기대회 종합 3위였다.

여자일반부 2인조전에서 강유라·남은설이 금메달을 차지한데 이어 대회 마지막날 열린 5인조전에서 이미소·강유라·남은설·이혜미·김동요·김진영이 출전, 용인시청과의 결승전에서 221-211로 승리를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고흥군청은 5인조전 4강전에서 평택시청을 256-192로 대파하고 결승에 안착했다.

반면, 결승전 맞상대인 용인시청은 대전광역시청과의 4강전에서 265-

256으로 신승을 거두는 등 기진맥진했다.

고흥군청은 결승전에서 파죽지세의 상승세를 바탕으로 진이 빠진 용인시청을 제치고 금메달을 품에 안았다.

김동요가 개인전 동메달을, 강유라·남은설·이혜미가 3인조전에서 동메달을 각각 획득하면서 강유라와 남은설은 2관왕을, 김동요는 금 1·동메달 1개의 주인공이 됐다.

한편, 고흥산업과학고 정혜경(2년)은 지난 6일 광주 하남불링장에서 열린 제33회 대한불링협회장배 전국남녀학생불링대회 여자 고등부 개인전에서 6게임 평균 220.7점을 마크, 오한희(인천 연수여고)와 공동 금메달을 획득했다. /최진화 기자

광주FC 펠리페 K리그2 5R 연속 베스트11

5경기 연속골...광주 5경기 무패행진 기여

광주FC 펠리페가 하나원큐 K리그2 2019 5라운드 베스트11에 선정됐다. 5라운드 연속 베스트11 선정은 2012년 황진성(포항), 알미르(고양) 이후 7년 만이다.

펠리페는 10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발표한 하나원큐 K리그2 2019 5라운드 베스트11 공격수에 이름을 올렸다.

펠리페는 지난 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안양과의 경기에서 광주의 두번째 골을 터트리며 5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펠리페의 득점에 힘입어 광주는 올시즌 5경기 무패행진과 함께 K리그2 선두를 질주 중이다.

5라운드 베스트11에는 빈치싱크



(안산), 펠리페(이상 FW), 한찬희(전남), 송흥민(부천), 백성동(수원FC), 디에고(부산·이상 MF), 조유민(수원FC), 수신야르(부산), 가솔현(전남), 국태정(부천·DF), 이희성(안산·GK)이 선정됐다. MVP는 멋진 중거리슛으로 이름을 각인시킨 송흥민이 뽑혔다. 베스트팀은 부산, 베스트매치는 1-1을 기록한 서울이랜드와 수원FC 경기가 선정됐다. /최진화 기자

KIA 해즐베이커 퓨처스 멀티안타

KIA 외인 타자 해즐베이커가 퓨처스리그에서 멀티안타를 기록했다. 비록 퓨처스 경기지만 KBO리그에서의 첫 멀티안타다.

해즐베이커는 10일 함평-기아 찰린저스 필드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중견수 겸 1번 타자로 출전, 3타수 2안타 1득점 1타점을 기록했다.

1회말 NC 선발 송명기의 2구를 잡아당겨 우중간 2루타를 기록했다. 이

어나지완의 좌중간 홈런포에 홈을 밟아 득점도 올렸다.

해즐베이커는 3회말 타석에서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났지만 5회말 다시 장타를 터트렸다. 1사1루에서 우중간을 가르는 2루타로 1타점을 기록했다. 이후 해즐베이커는 대주자 이은종과 교체됐다.

나지완도 이날 홈런 포함, 2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최진화 기자